YOU SEE,
BUT YOU DO NOT OBSERVE.
THE DISTINCTION IS CLEAR.

- 셜록 홈즈,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 中 -

GAMEVIL COM2US NEWS

GAMEVIL COM2US

VOL.171
2021.08

Cover Story, Be my precious family! '배진영' 사우
Special,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고독한 미식가, 재준이 형
Special,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유저와 함께 지키는 '해양 위기 동물 7종' 소개
Special,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성공의 숨은 공신,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Hive)'
Game Focus, 오늘은 나도 야구 승부사! 'OOTP GO'
Marketing Story, '컴프야2021'X'에어서울', "컴프야 플레이하고, 항공권 받으세요!"
Special, '낚시의 신' - Making Story
고전탐독, 그때 '갓겜'은 지금도 '갓겜'! '레이맨' 시리즈
Monthly Item,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은 홈캉스 꿀템! 가정용 눈꽃 빙수기

게임빌컴투스뉴스

GAMEVIL·COM2US MONTHLY MAGAZINE / WWW.GAMEVIL.COM WWW.COM2US.COM

서머너즈워

백년十전쟁

PERFECT INNING 2021

MLB PLAYERS GAMEVIL GONG GAMES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 2017-2021 GAMEVIL COM2US USA, INC. GAMEVIL AND THE GAMEVIL LOGO ARE TRADEMARKS OF GAMEVIL, INC. GONGGAMES AND GONGGAMES LOGO ARE TRADEMARKS OF GONGGAMES CORP.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AND MAJOR LEAGUE ALUMNI MARKETING, INC.

Global Mobile Game No. 1 'GAMEVIL-COM2US'

2021★08

Global Mobile Game Leader 'GAMEVIL-COM2US'

게임빌·컴투스는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게임사입니다.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모바일게임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양사는 '손 안의 즐거움'을 모토로 모바일게임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놈', '붕어빵타이쿤', '게임빌프로야구', '미니게임천국' 등 엄지족들을 열광시킨 히트 브랜드는 물론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컴투스프로야구',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낚시의 신', 'MLB 퍼펙트 이닝'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력 돋보이는 스테디셀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는 세계인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사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태국 등 10여 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에 기반한 방대한 유저 풀을 축적하여 게임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빌·컴투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폰 안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라이프로 출발합니다.

'GAMEVIL COM2US NEWS' 2021년 9월호에는
더욱 다양한 독자 분들의 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www. gamevilcom2us.com / gcnews

CONTENTS

★ INSIDE GC

08 Cover Story
Be my precious family!
'배지영' 사우

18 Special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유저와 함께 지키는 '해양 위기 동물 7종' 소개

20 Special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성공의 숨은 공신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Hive)'

22 Special
게임빌컴투스플랫폼X베스핀글로벌
'하이브' 플랫폼 서비스 파트너 업무 협약 체결

★ PEOPLE

12 Special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고독한 미식가, 재준이형

36 나도혼자산다
아니, 도구라는 것이 있다고?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2편

★ GAME

16 Game Focus
오늘은 나도 야구 승부사!
'OOTP GO'

23 Marketing Story
'컴프야2021'X에어서울
"컴프야 플레이하고, 항공권 받으세요!"

26 Special
'낚시의 신' - Making Story

28 고전탐독
그때 '갓겜'은 지금도 '갓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레이맨' 시리즈

★ CULTURE

32 퇴근후에
여름 추억을 담은
'산' 여행

34 맛세상
세상 쉬운 전통음식
'식혜' 만들기

40 Monthly Item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은 홈캉스 꿀템!
가정용 눈꽃 빙수기

★ FUN

38 My big data
'사보' 편

42 달콤한 인생
사내공모전: '휴가' 편

44 복면겜왕

48 게임백과사전
'오버워치' 중수를 위한
'고급용어' 편

49 WE WIT

55 Quiz
GC 상식 퀴즈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유연상
기획·편집 게임빌컴투스뉴스 편집부
디자인 박선영
표지 사진 고대은

기자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
게임빌컴투스뉴스 2021년 8월호 / 통권 제171호(Since 2001. 11.)
발행일 발행일 2021년 8월 1일 / 2001년 11월 창간호 발행(월간, 비매품)
발행처 게임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정보간행물 신고 일자 2018. 7. 5. 신고 번호 금천, 라00216

Be my precious family!

‘배진영’ 사우

안녕하세요~ 진영 님! 이달의 사보 주인공이신데요. 자기소개와 함께 ‘다섯 글자’로 어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C사업팀에서 ‘슈퍼 액션 히어로 리턴즈’를 담당하고 있는 배진영입니다. 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집순이 댕맘(개엄마)’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했는데,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완전 집순이가 되었어요. 출퇴근 아니면 강아지들과의 외출 외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SC사업팀에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기회에 팀 자랑도 부탁드려요!
SC는 ‘Sports & Casual’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스포츠와 캐주얼 위주의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SC 사업 1팀은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진영 님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행복한 강아지 두 마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와 함께 아이들만의 사랑스러운 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5년 11월 28일, 같은 날에 태어난 푸들 ‘모모’와 닥스훈트 ‘숭이’를 소개할게요.

모모는 항상 동생의 가슴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삑삑’하고 소리 나는 장난감을 좋아해서 자다 가도 장난감 공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와요.

숭이는 항상 저에게 몸을 붙이고 잡니다(특히 엉덩이). 배고프면 간식함 문을 열어 달라고 긁고, 물 그릇에 물이 없으면 빈 페트병을 갖고 와서 두드립니다.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달려와서 얼굴을 못 움직이게 붙잡고 뽀뽀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요즘 산책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 시기에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대방출 부탁드립니다.
주로 사람이 별로 없는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루프탑이 있는 강아지 운동장을 가면 거의 전세 낸 듯이 놀 수 있습니다. 흙은 밟지 못하지만 2층에서 인조 잔디를 밟게 해주면서 놀고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야외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평일 오후에 갔더니 사람도 많이 없고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많은 애정을 쏟지만, <셜록 홈즈>도 좋아하신다고요. 특별히 좋아하게 되신 계기나, 최애 멘트가 있다면요?

어릴 때부터 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도 추리물을 좋아했어요. <셜록 홈즈>는 추리물의 고전이자 가장 유명할 정도로 작품성이 훌륭해 저 역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나온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셜록>을 보고 다시 좋아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코로나가 풀리면 베이커st, 하이드 파크 등 <셜록>에 나오는 장소들에 가보고 싶어요.

최애 멘트는 역시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어도 그것이 진실이다!"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 가능한 가장 유명한 멘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지원 씨의 '찐팬'이시라고요! 사우분들을 '은며'들게 하기 위한 추천 영상들과 매력 포인트를 알려주시겠어요?

아... 너무 많은데요, 일단 1998년 영상 중에 <로드파이터>와 <무모한 사랑>을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영어 애드립으로 랩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영어 잘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찾아보곤 해요. (*영상명 - 로드파이터 영어랩 980829 고화질 Road Fighter Live English rap Ver)

그리고 <신서유기>와 <강식당>에서 美친자로 나올 때도 초딩같이 엉뚱한 면이 귀엽고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도 매력이고요.

물론 그래도 역시 본업 할 때가 제일 좋아요! 2016년 옐로우 노트 콘서트에서 <8t.truck>을 부르면서 댄서들과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은며들기 좋은 영상이죠.

은지원 씨는 연예계의 대표 게이머이기도 하죠. 함께 해보고 싶은 우리 게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상 편지 남기듯 부탁드려요.

무릎이 안 좋고 움직이기 싫어하여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이니 사이버 세계에서라도 스포츠를 즐겼으면 한다는 뜻에서 '컴투스 프로야구'나 '낚시의 신', '골프 스타'와 같은 스포츠 게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게임들도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서유기에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주신다면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은지원 씨가 보실지도 모르니 한마디 부탁드려요.

건강 조심하시고, 본업 하는 모습 다시 봤으면 해요. <불나방>은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요즘은 <벌거벗은 세계사> 잘 보고 있어요. <신서유기>도 얼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끝을 모르고 또 한 번 대유행이 왔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회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글. 박민찬 기자 / pmch22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 고독한 미식가, 재준이형 –

유튜브 추천 콘텐츠에 낯익은 이름의 영상이 나타났다. 이름하여 '고독한 재준이형'. 호기심으로 눌러본 이 영상을 보고 기자는 빵! 터져버렸다. 타이틀에 있던 '재준이형'이 진짜로 '그' 재준이형이었을 줄이야.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우리 대표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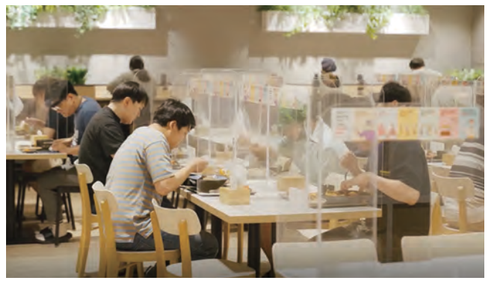
사내 식당 리뉴얼 홍보를 위해 직접 나선 우리 '재준이형'

지난 사보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게임빌·컴투스의 사내식당 'Cooking'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직원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대박. 이제 점심시간 사내식당에선 식판 인증샷을 찍는 사우들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사내 식당의 리뉴얼은 게임빌·컴투스 조직문화 '레벨-업 프로젝트'의 신호탄이다. 이 프로젝트는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게임빌·컴투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일터 경험을 제공하고, 인재를 유치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만들고자 진행 중이다. 그런 만큼, 최고 경영진인 송재준 대표님이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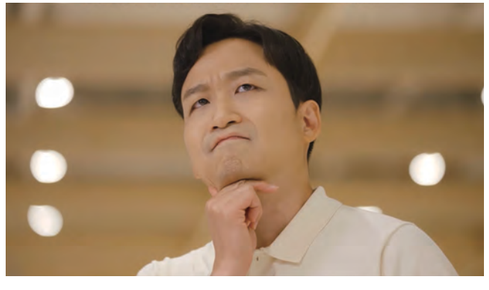
그래서, 3,454개의 메일을 전부 해결한 우리 '재준이형'의 특식은 무엇일까?

영상은 분주한 타자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오전 업무를 마무리한 재준이형은 활기찬 점심시간 특유의 공기를 느끼며 사내식당 'Cooking'으로 향한다. 재준이형은 사내 식당의 따뜻한 인테리어와 달라진 메뉴를 꼼꼼히 체크한다.



▲ 사내 식당의 시설과 인테리어

준비된 메뉴들이 전부 맛있어 보여 행복한 고민에 빠진 재준이형.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구이를 먹을지, 새롭게 도입된 해면기로 갓 삶아낸 탱글탱글한 식감의 면 요리를 먹을지, 아니면 다양한 구성의 건강식을 먹을지 고민한다.



♥.♥ 그래 너로 정했다! '커리 2종과 플레인 난 세트'

유려한 플레이팅으로 눈과 입이 동시에 만족한 식사를 마친 후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재준이형. 하지만 조금 쓸쓸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때론 혼자가 아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 생각하는 순간!

이때 역대급 까메오가 등장한다

바로 게임빌의 이용국 대표님이다. 식사 중인 재준이형을 발견하고 반갑게 옆자리에 앉았으나 바로 출행랑(?)을 쳐버린 재준이형을 안타까운 듯, 서운한 듯 바라보는 연기가 일품이다.

▲ 누군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는 재준이형

▲ 재준이형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이용국 대표님

▲ 이용국 대표님이 옆자리에 앉자마자 출행랑(?) 중인 재준이형 (호다닥)

▲ 앗…아아….

능청스러운 재준이형의 연기력이 킬포

평소 송대표님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사족 없이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스마트한 경영진이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차도남(?)의 이미지였는데, 영상 속의 자연스러운 내레이션이나 "곧 카페테리아도 개편되니 기대하라고!"라고 말하며 능청스러운 윙크를 날리는 모습은 송대표님이 아니라 영락없이 재준이'형'인 것만 같다.

익숙한 출연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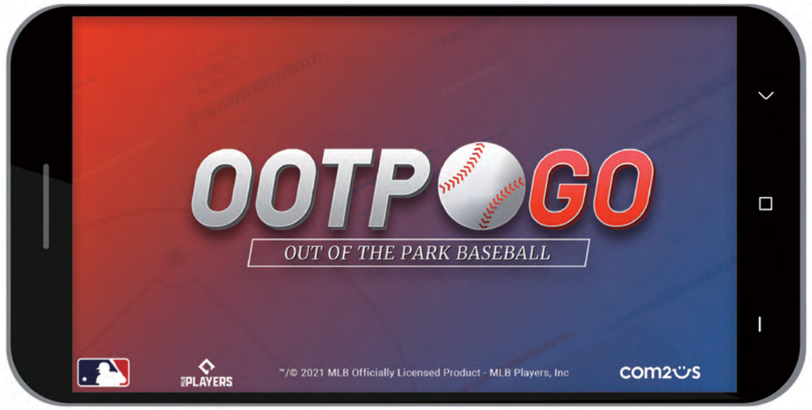
영상을 보다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회의실에서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여 까르르 웃는 직원들은 사실 가치경영본부에서 섭외한 우리 직원들이다. 재준이형의 식사 장면에서 아웃포커싱 된 직원들 역시도 우리 동료들이라고. 영상 속에서 아는 얼굴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어색한 연기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동료들

마치며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던 대표님들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것 같다. 영상은 게임빌·컴투스 채용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란다. 그럼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빌·컴투스, 기대하라고!

글. 강현진 기자 / better2day@



오늘은 나도 야구 승부사! 'OOTP GO'

'OOTP GO'는 야구 감독이 되어 팀을 꾸리고 다른 야구단들과 경쟁하는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야구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유명한 'OOTP 22'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작의 전략적 재미는 유지하되 모바일 플랫폼의 편의성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프랜차이즈 모드 vs 퍼펙트 팀 모드

'OOTP GO'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2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모드는 현존하는 야구단의 감독이 되어 시즌을 이끌어가는 모드이며, 퍼펙트 팀 모드는 전력이 비교적 약한 '나만의 팀'을 최고의 구단으로 성장시키는 모드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팀을 만들어 진행할 것인지의 차이다.

프랜차이즈 모드, 워너비 팀의 감독으로

프랜차이즈 모드를 선택했다면 우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구단 혹은 좋아하는 선수가 포함된 팀을 찾아보자. 올해 창단한 'SSG 랜더스'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 오래된 야구팬도 이제 막 야구를 보기 시작한 야린이도 응원하는 팀을 찾는 데 문제가 없다.

응원하는 팀을 찾았다면, 팀 로스터에 들어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응원하던 선수의 스탯을 확인해보자. 게임 속 스탯을 통해 선수별의 강점을 알 수 있고, 해당 선수의 종합 능력치와 성장 가능성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혹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스탯이 다소 낮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게임은 계속되니까 말이다.

선수 구성 & 전략의 재미

프랜차이즈 모드에서 선수단을 확인했다면 로스터 구성을 진행하자. 'OOTP GO'에서는 자신의 전략에 맞춰 직접 로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아직 게임에 적응 중이라 직접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AI모드의 도움을 받자. 이후 다음 경기로 진행하면 세부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답게 공격/수비/피칭 등 역할별 전략과 회차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 설정이 가능하다. 게임을 시작하면 감독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투구를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히트 앤 런'과 '런 앤 히트'를 구분할

정도로 상세한 전술 지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술 지시는 게임에 큰 변수가 되어 전술을 통한 승리감을 얻을 수 있다.

퍼펙트 팀 모드, 나만의 팀을 구성하고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자

퍼펙트 팀 모드를 선택했다면, 선수팩 6개와 1000pp(일반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다. 시작부터 능력치 80 이상의 고등급 선수를 얻을 수 있으니 팩 개봉 전에 기도는 필수다. 선수팩에서 얻은 선수들로 나만의 팀을 구성하자. 선수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략 스타일에 맞춰 밸런스를 갖춘 로스터 혹은 한 쪽에 몰빵(?)한 극단적인 로스터도 가능하다.

쉴틈 없는 전략의 연속

시즌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진 선수 풀 안에서 최고의 로스터를 결정했다면 바로 시즌에 돌입한다. 매일 세계 각지의 유저들과 경기를 자동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팀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다. 상대적으로 선수풀이 나쁘더라도 상대방이 방심하고 전략을 짜지 않았다면 그 약점을 노려서 전략적인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선수 트레이딩을 통한 구단 경영까지

선수가 부족하다면? 혹은 특정 포지션에만 좋은 선수들이 몰려 있다면? 그럴 땐 거래소를 찾아가자. 여기서 다른 유저와의 거래를 통해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 모든 거래가 게임내 재화인 pp로 진행되기 때문에 플레이를 열심히 하면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만약 팩에서 매우 높은 등급의 선수가 등장했다면?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전체 선수단을 밸런스 있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일 것이다.

이런 유저라면 주목!

야구의 꽃은 투수가 아니라 감독!
야구는 데이터 싸움이지
야구의 아웃게임 & 인게임 모두 즐기고 싶어
난 평범한 전술은 싫어
내가 선수도 뽑고 로스터도 짜야지
세계 최고의 구단을 가지고 싶어

글. 김현창 기자 / guscksd1015@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유저와 함께 지키는 ‘해양 위기 동물 7종’ 소개

컴투스가 글로벌 명작 ‘서머너즈 워’의 출시 7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환경 재단과 함께 ‘서머너즈 워’ 게임 내 공동 미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소중한 동물들을 지켜 나가고 있다. 해양 위기 동물로 선정된 푸른바다거북부터 듀공까지, ‘서머너즈 워’ 7주년 캠페인을 통해 보호받게 될 7종의 위기 해양동물들을 만나보자.

❶ 푸른바다거북(Green Turtle)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2004년 지정한 멸종위기 종이며 단단한 등딱지 속에 있는 지방질로 푸른색을 띄어 푸른바다거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푸른바다거북은 연안 개발로 인해 산란장이 훼손되거나 기후 변화로 서식지를 잃고, 페비닐과 폐그물에 의한 피해 등 대부분 많은 수의 개체가 인간 활동에 의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산란이 가능한 암컷의 수는 지난 3세대 동안 48~6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❷ 고래상어(Whale shark)

고래상어는 지구상 가장 큰 물고기로, 다이버들과 나란히 수영을 할 정도로 순한 동물이다. 과거 남획으로 개체 수가 극단적으로 줄면서 2016년부터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 최근에는 해상교통과 어업, 레저산업 등 사람들의 활동과 그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폐밧줄,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 등으로 고래상어의 삶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❸ 만타가오리(Manta ray)

‘대왕가오리’로 불리는 만타가오리는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편편한 담요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 스페인어로 모포를 뜻하는 ‘만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특이한 외형때문에 쉽게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어업 활동을 위해 쳐 놓은 그물과 선박, 다양한 해양 오염 등으로 급격히 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❹ 이라와디돌고래(Irrawaddy dolphin)

이라와디돌고래는 판다처럼 하얀 배와 살짝 올라간 입꼬리때문에 ‘웃는 돌고래’로도 유명하다.

과거에는 기름을 얻기 위해 사냥 당했으나 환경오염으로 삶이 위협받고 있다. 사람들이 쳐 놓은 어망이나 통발 등에 걸쳐 폐사하거나 댐 공사로 인한 주요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으로 주식인 물고기들이 병사하면서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2017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❺ 큰양놀래기(Humphead wrasse)

큰양놀래기는 머리에 혹이 나 있는 모습이 닮았다고 하여 나폴레옹 피시라고도 불린다. 활어 수출을 위한 지나친 남획과 해양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전체 개체수가 최소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전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다.

❻ 해마(Seahorses)

이름 그대로 겉모습이 말을 닮은 매우 독특한 외형의 실고기과 물고기다. 해마는 독특한 모습 때문에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고, 보신용 약재로도 쓰여 남획과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아열대 바다의 얕은 수심에 주로 서식하는데, 최근 산호초가 줄어들고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연안 환경이 갈수록 오염되고, 연안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존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❼ 듀공(Dugong)

말레이 원주민의 언어로 ‘바다의 여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새끼를 안고 물속에서 젖을 먹이는 모양이 마치 여인의 모습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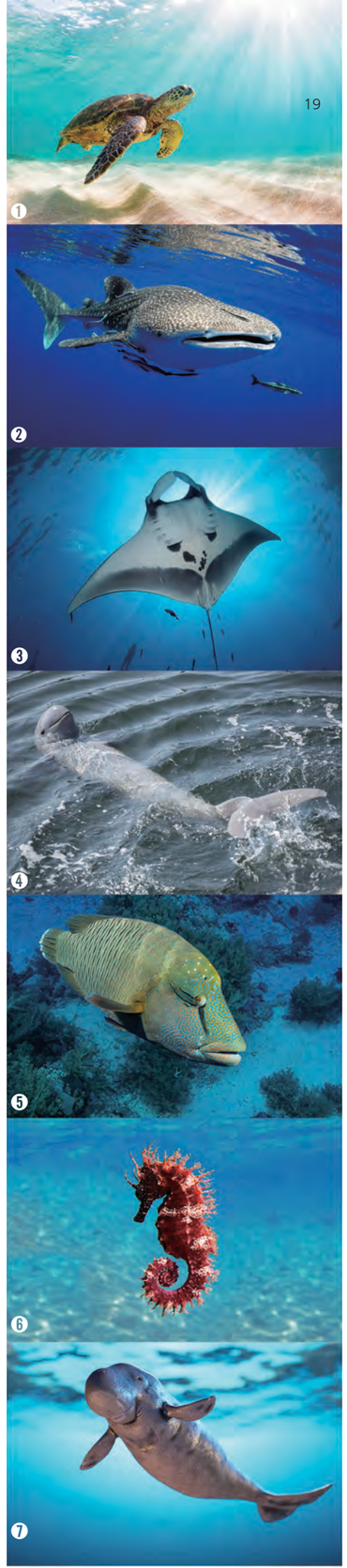
듀공은 어업과 환경오염, 밀렵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은 70년 정도로 길고 번식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개체 수가 늘어나기 힘든 환경이다. 주식인 해초도 고갈돼 그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취약종으로 구분해 보호하고 있다.

마치며…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던 환경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일상 속에서도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머너즈 워’ 속 천공의 섬 몬스터들이 성장하기 위해 유저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자연 속 위기의 동물들을 지켜가려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 7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서머너즈 워’처럼 해양 생물들도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

글. 김성수 기자 / sungsoo@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성공의 숨은 공신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Hive)'

게임빌·컴투스의 게임을 한 번이라도 즐겨봤다면 '하이브(Hive)'라는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이브는 게임빌과 컴투스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한 '게임 전문 플랫폼'이다. 제작부터 운영은 물론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까지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툴을 제공하며 게임빌·컴투스 대표작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조력자로 자리해 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글로벌 성공의 숨은 공신, '하이브'에 대해 소개한다.

'하이브'의 글로벌 특화 기능

하이브는 글로벌 서비스에 특화된 강력한 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외부 게임사들에게도 하이브를 개방해 사업 외연도 확장했다. 모바일 게임의 시초부터 쌓아 온 게임빌과 컴투스의 노하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게임사들의 날개가 되어주고 있다.

★ Almost everywhere! 전 세계 사용 언어 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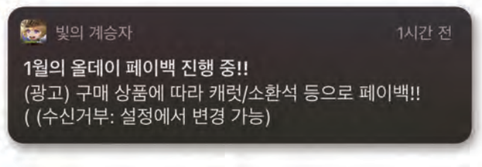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32개 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남미 사용자가 많은 포르투갈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주요 언어를 16개 지원하는데, 이는 전 세계 사용 언어의 80%를 아우르는 수준이다.

★ 접속 국가에 따른 유저 인증

게임 접속 시 따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저를 인증해 주는 플랫폼(혹은 SNS) 서비스를 제공한다. Apple Game Center, Google Play 게임, Facebook, 하이브 멤버십, QQ, VK, Wechat, LINE, Weverse 등 최대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국가 별로 가장 범용성 높은 플랫폼과 호환된다. 또한, 유저의 국가 정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증 서비스를 노출해 유저들의 편리한 게임 시작을 돕는다.

★ 타임존 기반의 푸시 발송! 노티피케이션 기능

지구는 둥글고 유저들은 다 함께 우리 게임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대는 다르다. 나의 활기찬 아침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피곤한 퇴근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하이브의 타임존 기반의 푸시 발송이 아주 유용하다. 각국의 현지 시간으로 푸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설정으로 리텐션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대용량 푸시, 타겟팅 푸시, 싱글 푸시, 로컬 푸시 등 다양한 세그먼트를 활용한 발송 형태를 지원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전 세계 메인 마켓들과의 빌링 파트너십

하이브 IAP(In-App Purchase)는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하나의 API로 여러 마켓의 일회성 및 구독 결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이 가능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하이브의 빌링 파트너사 로고: 애플, 구글, 원스토어, 갤럭시*, 화웨이, 베트남 펀탭*, 아마존 (* 해당 마켓에서는 소모성 결제만 지원)

'하이브'의 효율적인 라이브 서비스

★ 편리한 운영을 위한 SDK 툴킷

하이브는 게임의 성공과 함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로그인 인증, 결제, 쿠폰, 친구 추천, 광고, 푸시 알림, 팝업 알림, 서비스 지표 분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한다. SDK를 통해 제작자는 게임의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유저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유저의 활동 내역 등으로 쌓인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보로 제공해 유저의 니즈를 파악해 게임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하이브 콘솔

하이브 콘솔은 게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백오피스다. 개발팀을 통하지 않고도 콘솔을 통해 인게임 공지, 이벤트 캠페인 운영, 아이템 지급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유저나 세그먼트에 대한 푸시 알림 및 배너 노출, 게임 해킹 탐지 및 이용 제한, AI 챗봇 등을 포함한 고객지원 기능을 제공해 개발 비용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라이브 서비스 환경을 꾸릴 수 있다.

★ 하이브 개발자 사이트

하이브를 시작하는 게임사와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 사이트다. 하이브 전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해 플랫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매출 극대화를 위한 분석 기능 및 마케팅 채널 확보

★ 빅데이터의 효율적 운용! 하이브 애널리틱스

글로벌 게임 플레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유저가 어떤 경로로 게임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접속하고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는지 등 게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광고 매출 분석, 프로모션 분석, 퍼스널 분석 등 게임 특색에 맞게 커스텀 하여 원하는 지표를 실시간 확인해서 고객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 하이브 크로스 프로모션

크로스 프로모션이란, 게임 내 광고를 통해서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마케팅 서비스이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MLB 9 이닝스', '별이되어라!', '겜프야', '컴프야', '낚시의 신' 등 글로벌 성공으로 검증된 게임들과의 크로스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며

현재 하이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되는 게임은 약 50여 종이며,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억 건에 이른다. 올해부터 벨로프, 라온누리소프트, 우가차카 등 외부 게임사의 게임에도 적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모바일 기기와 PC의 크로스 플레이 지원, AI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사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 게임사들까지의 글로벌 진출의 조력자로서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글. 정하윤 기자 / jeonghy2@

▲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최석원 이사(좌)와 '베스핀글로벌' 김재범 구글2 사업 부장(우)

게임빌컴투스플랫폼X베스핀글로벌

'하이브' 플랫폼 서비스 파트너 업무 협약 체결

게임빌컴투스플랫폼이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기업 베스핀글로벌과 '하이브(Hive)' 서비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사는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 클라우드 시스템 전문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게임사들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 고객 저변 확대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는 글로벌 시장에 특화된 방대한 기능을 개발사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로그인 인증, 결제, 크로스 프로모션, 서비스 지표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형태로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전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게임빌과 컴투스 양 사가 기술적 역량을 결집해 론칭한 하이브는 글로벌 명작으로 인정받는 '서머너즈 워'와 8년 차 장기 흥행 게임 '별이되어라!' 등 50여 종에 적용되어 글로벌 성공 게임들의 숨은 조력자로서 안정성, 다양성, 범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BESPIN GLOBAL

베스핀글로벌은 멀티 클라우드 자동 관리 OS '옵스 나우(OpsNow)'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로부터 전 세계 10대 클라우드 MSP 기업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컴프야2021'X에어서울 제휴 프로모션 진행

"컴프야 플레이하고, 항공권 받으세요!"

'컴투스프로야구2021'(이하 컴프야2021)이 국내 항공사 '에어서울'과 컬래버레이션 프로모션을 펼쳤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 도장 깨기'라는 타이틀로 진행했으며, 간단한 참여만으로 게임 유저는 물론 '에어서울' 탑승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컴프야2021'하고 '비행기'타고

유저들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컴프야2021'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으로 획득한 여행 도장을 모아 '에어서울'의 국내선 예매권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7명에게는 자신이 희망하는 여행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에어서울' 항공 예매권이 주어진다.

또한, 누적 응모 횟수에 따라 '컴프야2021'의 인기 아이템으로 꼽히는 '100% 플래티넘팩'을 비롯해 '구단 선택 나만의 팩', '고유 능력 변경권' 등 다양한 게임 보상이 추가로 제공된다.

'비행기'타고 '사인볼'받고

'에어서울'도 제휴 프로모션을 기념해 15일과 16일 양일에 거쳐 기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컴프야2021' 신인왕 모델 4인방을 비롯한 KBO 인기 선수들의 친필 사인볼을 고객들에게 증정했다. 이 외에도 공항 내 이번 이벤트 POP를 추가 게시해 참여자 모두에게 특별한 게임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신선한 콜라보

'컴프야2021'은 올해로 시리즈 19년 역사를 자랑하는 3D모바일 야구 게임인만큼,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선한 재미를 주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쳐폰 시절 도트 그래픽으로 시작해 현재는 최첨단 모션 캡쳐를 통한 고도화된 그래픽과 물리 엔진은 물론 KBO 구단의 실제 응원가를 게임 내 완벽히 구현하는 등 현실 야구의 모든 것을 손안에서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다.

ACEPROJECT
GENERAL MANAGER
com2us
9INNINGS
COM2US
9INNINGS
MLB
9이닝스GM

낚시의 神
신

▲ 재물을 상징하는 금색 아로와나(금룡)와 건강을 상징하는 붉은색 아로와나(홍룡). 독자들에게 재물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 '낚시의 신' 개발진 올림 -

'낚시의 신' Making Story

2014년 첫 선을 보인 '낚시의 신'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3D 리얼 낚시 게임이다. 출시 이후 7년 동안 많은 조사(釣師, 혹은 釣士)들의 사랑을 받으며 장수 인기 레포츠 게임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낚시의 신'이 출시되기까지의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그때 그 시절

당시 모바일 게임 시장은 SNG류가 황금기를 이룬 시기였다. 2011년 출시한 컴투스의 '타이니팜'이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하루 평균 70만 명이 즐기는 '착한 게임'으로 명성이 드높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게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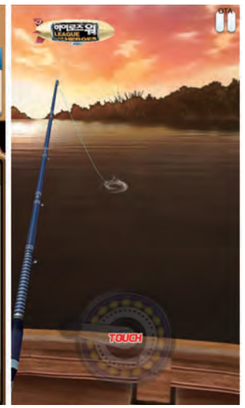
기자는 그러한 시기인 2012년부터 컴투스와 함께하게 되었고, 기존의 2D가 아닌 3D에 여러 가지 쉐이더 기술들을 접목해서 '낚시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가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소 시기 상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고도화시켜 만들면 경쟁이 적은 낚시 게임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초기 버전을 만들었다.

초기 개발 과정은 순탄해 보였지만, 최초 버전은 무척 실망스러운 반응이었다. 모바일 특유의 쫀득한 감성이 없었고, 메뉴의 터치감도 없었으며, 유저들에게 재미를 부여할 단계적인 허들 요소도 고려되지 않았다. 인앱 요소는 너무 단순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하드코어 유저만이 잡을 수 있는 보스의 난이도 설계 등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로 넘쳤다.

최초 버전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초창기에 주로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로 구성되었던 개발진이 모바일 감성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모바일 게임만의 특성들을 간과한 채 기술적인 테크닉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다소 안일한 생각에 빠져 완성도 측면에서 매우 부족해진 것이다.

▲ 출시 1년 전 개발한 프로토 타입 화면

▲ 수없이 갈아 엎었던 '내가방'과 '상점'



▲ 지금과 다르게 릴을 손으로 직접 돌려서 조작했다.

3D 그래픽에 감성을 넣다

개발진은 어떻게 하면 모바일 게임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낚시의 신'을 만들 수 있을지 차례차례 연구해 보기 시작했다.
한번은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놓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끔 연출을 추가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 별도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친 물고기가 달아나는 연출을 추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물고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추가되었고, 이렇게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지금의 '재도전'이 만들어졌다. 실제 낚시에서도 놓친 물고기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낚고 싶다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 기능이 조사님들의 큰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아 뜯어내고 갈아엎기를 수십 번.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수많은 피드백이 지금 생각해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요구하는 트렌드는 모른 채 콘텐츠 덩어리들만 만들어 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결국 부족한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 1년 동안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쳤고, 그동안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수많은 3D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저들이 퍼즐이나 SNG 류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보다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게임들까지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흥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시기에 맞춰 상품성을 높이고 모바일 게임 특유의 감성을 보완한 '낚시의 신'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그리고 1년 만에 3천만 다운로드를 돌파, 영국의 모바일 게임 전문 매체 '포켓게이머'가 선정한 2015년 최고의 스포츠 게임으로 선정되며 게임성을 인정받았다.

감사함을 넘어 다시 또 새로움으로

'낚시의 신'은 출시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요청 사항과 개선 사항들이 있었다. 당시 개발자인 기자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낚시의 신'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물론 출시 후에도 많은 조사님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의 원동력이 되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게임에 로그인하신 '출석왕' 조사 3분을 비롯해 63일간 쉬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 하신 '철인왕' 조사님, 약 132만 마리의 물고기를 낚으신 '수족관 사장님' 등 개발진의 입장에서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기록을 세우신 조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Fishing스튜디오에서는 요즘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낚시와 방치형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아직은 개발이 한참이라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개될 새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현재 서비스 중인 상용버전의 '내가방'과 '상점', 천지차이다.

글. 문정환 기자 / sh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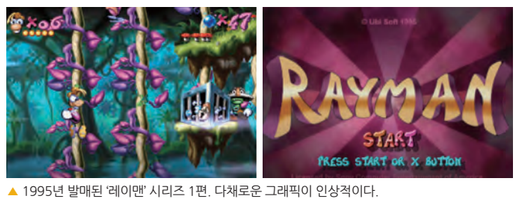
그때 '갓겜'은 지금도 '갓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레이맨' 시리즈

학부생 시절, '고전소설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전공필수로 지정된 과목이라 동기들의 볼멘소리가 가득했었다. 선배들은 "그 교수님 성격이…" 라며 지레 겁(?)을 주기도 했다. 첫 강의 날, 교수님은 칠판에 '古典'이라는 단어를 판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전은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가 진행되고, 끝내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들이 고전으로 현대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가치를 인정받은 고전소설을 연구할 것입니다."

지금 기사를 쓰며 생각해 보니,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단순히 '오래된 게임'이라 고전 게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제작되었지만 '잘 만든 게임'이 지금까지 유저들에게 향유되는 것이다. 절판 등의 이유로 플레이가 어려운 게임들은 플랫폼의 발달로 'STEAM'이나 'GOG.COM'을 통해 재출시되기도 하고, 유저들의 요구에 힘입어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법으로 재출시되기도 한다. 그때 '갓겜'은 지금도 '갓겜'인 셈이다.



▲ 1995년 발매된 '레이맨' 시리즈 1편. 다채로운 그래픽이 인상적이다.

혹시 어렸을 때 '레이맨'이라는 게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필자와 비슷한 또래의 1990년대 생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경험해본 '주먹 날리는' 게임으로만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치밀한 게임 디자인으로 지금의 거대 게임 제작사 '유비소프트'를 있게 한, '레이맨' 시리즈를 소개한다.

▲ '레이맨' 1편과 DLC 2편이 추가된 합본판 '레이맨 포에버'.

'레이맨' 1편은 유비소프트에서 직접 개발과 유통을 담당하며 '아타리 재규어'라는 콘솔형 게임으로 1995년 9월 최초로 발매됐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영상사업단이 1990년대 후반에 정식 발매했다. 재미있는 점은 그 당시 PC를 사면 사은품 개념으로 여러 게임을 증정(?)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때 '레이맨' 1편도 함께 제공된 게임 중 하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게임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 기본적인 플레이는 횡스크롤로 진행되며, 주먹을 날려 적을 해치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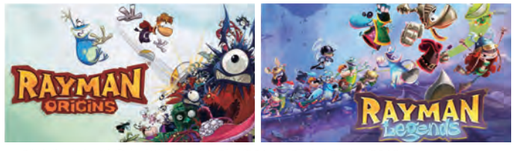
게임의 첫인상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동화풍의 세계에서, 영웅 레이맨이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 미스터 다크를 물리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린 2D 플랫포머 게임이다. 가볍게 보이는 게임성과는 다르게(?) 1스테이지인 꿈의 숲을 클리어하고 나면 난이도가 가파르게 수직 상승한다. 1스테이지와 달리 미끈거리는 지형, 공중에서 날아오는 적들, 탄막 슈팅 게임을 연상케 하는 후반 스테이지… 게임을 처음 해보거나 컨트롤이 좋지 않다면 이 스테이지부터 모든 목숨을 소모하고 재도전해야 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 어렵다… 하지만 그냥 어려운 것은 아니다. 기믹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4스테이지인 사진의 도시는 '레이맨' 1편에서도 어렵다고 손꼽히는 스테이지다. 그러나 무조건 어렵게만 설계되어 있지 않고 돌파할 수단을 게임 내 요소들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레이맨의 특수 능력이 그것이다. 헬리콥터 비행으로 날아다니면서 기믹을 회피하거나, 달리기로 적들을 해치우지 않고 회피하는 등, 각 스테이지 돌파에 요구되는 특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스테이지를 돌파할 수 있게 설계했다. 물론 일부 특수 능력들은 게임 내 스테이지에 숨겨진 요소로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클리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죽고 재도전하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다.

▲ 최종 보스인 '미스터 다크'와의 대결.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엔딩 크레딧이다.

미스터 다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 드디어 게임의 엔딩을 볼 수 있다. 게임의 높은 난도 와는 달리 엔딩은 '세상을 구한 레이맨'이 되는 것으로 끝나다소 심심할 수 있다.



▲ '레이맨' 시리즈의 후속작인 '레이맨 오리진(2011)', '레이맨 레전드(2013)'

제작사인 유비소프트에서도 '레이맨 프랜차이즈'의 상징성과 인기에 힘입어 2편의 후속작을 출시했다. 레이맨 1편의 아름다운 레벨 디자인, 정교하게 설계된 보스 패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극악의 난도로 악명이 높아 후속작들은 1편에 비해 비교적 낮은 난도로 출시되었다. 도트 그래픽 기반 게임에서, 최신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모델링 개념을 도입하는 등, 현대 게이머들의 입맛에 맞게 게임을 선보인 것이다. 2편인 '레이맨 오리진'과 3편인 '레이맨 레전드'는 미국의 유명 리뷰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모두 평균 90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 다음 후속작은 언제쯤?!

아쉽게도 레이맨 레전드 이후 8년간 레이맨 시리즈의 정식 후속작은 발매되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도 레이맨 시리즈의 행보는 모바일 이식,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플랫폼 이식이 전부다. 유비소프트는 공식적으로 레이맨 시리즈의 후속작 개발에 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2018년 10월 유비소프트와의 개발 방향성 인터뷰를 통해 현재 레이맨을 유비소프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CO(최고 창의력 책임자)인 Serge Hascoet는 "레이맨은 어쌔신크리드만큼 팔리지 않고 있다. 팀은 성공하길 원하며 성인 등급의 게임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라며 다소 아쉬운 발언을 남겼다.

▲ 고전 명작 게임이 다시 살아 움직이길 바라며…

아쉽게도 다음 후속작 출시일은 미정이지만, 유비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와 유비소프트의 자체 플랫폼 '유비커넥트'에서 '레이맨' 1탄의 합본판 '레이맨 포에버'를 6,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이 컨트롤에 자신 있는 게이머라면 레이맨은 만족스러운 "컨트롤"게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사진 출처 . Ubisoft Entertainment 및 레이맨 위키 페이지 발췌
글. 김풍기 기자 / anthony@

별이 되어라!

여름 추억을 담은 '산' 여행

한국은 산이 참 많다. 인구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는 수도권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침에 일어나 어느 방향을 봐도 산을 볼 수 있다. 태국의 넓은 평야 지역에서 태어난 기자가 처음 한국에 와서 놀랍고도 부러웠던 사실 중 하나도 국토 중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일부러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서울 곳곳에서 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살게 된 후부터는 가벼운 등산 코스의 산에 자주 가게 됐다. 꽃과 잎이 나기 전인 겨울과 봄은 상대적으로 경치가 단조롭고 조금 외로움을 자극하는 듯해서 개인적으로 여름과 가을 등산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여름이야말로 등산의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자의 여름 추억이 담긴 산 여행을 소개한다.

선명한 사탕같은 목포 풍경과 노을빛의 '유달산'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산 42-2
★ 개인 리뷰: 난이도 ★★, 풍경 ★★★★★
★ 평가: '초보자에게 추천할만한 코스'

2016년 여름, 광주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다. 문득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기자가 좋아하는 가수의 고향인 목포도 한 번 들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1박 2일로 목포 여행을 계획하며 검색하던 중 '유달산'이 나와 코스에 포함하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목포까지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오후가 다 되어 있었다. 숙소에 짐을 두고 나와 카메라를 메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니 유달산의 노적봉에 도착했다. 날은 화창했고, 오르막길도 나무가 많아 그늘로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었다.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하니 파노라마 뷰의 목포 도시와 바다가 펼쳐졌다. 푸른 바다와 하늘, 생생한 사탕 같은 건물들, 그리고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들을 한눈에 담아보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유달산의 정상으로 올라갔다. 정상까지의 오르막길도 완만해서 산책 삼아 천천히 걷다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정상에 닿았을 때는 마침 해가 지는 무렵이었다. 기자 외에도 노을을 기다리며 카메라를 세팅해 둔 사람들이 있었다. 유달산은 해발 228m로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특히 하늘빛이 조금씩 변하면서 해가 저 멀리 산맥 뒤로 점점 사라질 때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2시간의 노력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용머리 위에 숨어 있는 한양도성과 북대문

★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산 2-27
★ 개인 리뷰: 난이도 ★★★★, 풍경 ★★★★,
★ 평가: '등산 및 역사적인 관광지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

안내소에서 출발한 후 10분 정도 걸으면 산속에 숨어 있는 북대문에 도착한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넓은 광장에 위치한 남대문과 동대문보다 북대문이 다소 작아 보인다. 불행하게도 방문한 시기에 북대문이 수리 중이라 눈으로만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서울 우수 조망명소에 도착하는데, 날이 좋다면 남산 방향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시 풍경을 즐기며 구불거리는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봉우리를 넘어 하산하게 된다. 옆 봉에 서서 한양도성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치 용의 몸처럼 보였다.

2012년도의 일이다. 서울투어를 하던 중에 경복궁 뒤에 위치한 백악산이 용머리와 비슷하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듣고 보니 백악산의 큰 바위 3개가 정말로 누군가의 눈과 코인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부터는 백악산을 지나갈 때마다 그 용머리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다.

몇 년 후 여름에 혜화동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한양도성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서 출발할까 찾아본 후, 가장 가까운 '와룡공원길'을 걷기로 정했다.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학교 후문에 내렸더니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서울의 북쪽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양도성이 쭉 이어져 있다. 한양 도성길을 따라 걷다 보면 초록빛 자연과 서울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즐겁고 상쾌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말바위 안내소에 도착했다. 여기서 서울 한양 도성 스탬프 투어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숙정문(북대문) 스탬프도 찍을 수 있다.

구간마다 스탬프를 모을 수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먼저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후 목걸이 번호표를 받아서 들어갔다. 백악산은 청와대 뒤에 위치하기에 CCTV가 많고 사진 촬영 방향도 제한되어 있다.

하산하기 전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1·21 사태 소나무다. 바로 이 소나무가 1968년에 일어난 청와대 습격 사건 때 교전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다. 당시 교전으로 인한 열다섯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

그 외에도 백악산 위에는 역사적인 지점이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었다. 사실 하산하는 길에 기자는 이미 파김치가 되어버렸지만 그림같이 아름다운 주변 풍경 덕분에 조금은 기운이 났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백악산의 산길은 일부 구간에 가파른 길이 이어져 있으니 초보자에게는 체력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경치 감상은 충분히 도가치가 있으니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한다.

글. 노이농 기자 / mindulrei@

세상 쉬운 전통음식 '식혜' 만들기

어느덧 뜨거운 8월이다. 계곡으로 바다로 떠나는 가장 핫한 휴가의 달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요즘,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실내에서 소소한 나만의 휴가를 보내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살얼음이 껴 있는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가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래서 소개해 본다. '초간단 식혜 만들기'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조법

마트에서 따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절 때나 맛볼 수 있던 식혜,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식혜는 필요한 재료도 적고 만드는 방법 자체도 쉬운 편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손이 많이 가서 직접 만들기는 번거롭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초간단 식혜 만들기! 두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그전에 기존의 전통방식의 식혜 만드는 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짚어 보자.

★ 전통방식으로 식혜 만들기

❶ 엿기름에 물을 부어 30분~1시간 정도 불린 후 베주머니에 넣어 조물조물 주물러 엿기름 물을 만들고 가라앉혀준다.
❷ 기호에 따라 찹쌀이나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준다.
❸ 전기밥솥에 고두밥과 엿기름의 맑은 윗물만 넣고 밥알이 뭉쳐 있지 않게 섞어준다.
❹ 설탕 2스푼을 넣은 뒤 보온 기능으로 밥알이 적당히 둥둥 뜰 때까지 삭혀준다. (보통 4~5시간)
❺ 삭힌 엿기름 물을 냄비에 옮긴 후 생강, 설탕 등을 넣어 끓여준다.

아이고…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도 벌써부터 상당히 번거로워 보이지 않는가. 지금부터 두가지 방법으로 초간단 식혜를 만들어보고 전통방식의 식혜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엿기름 티백'으로 초간단 식혜 만들기

엿기름을 불리고, 조물조물 주물러 엿기름 물을 만들고.. 또 오랜 시간에 거쳐 가라앉힌 맑은 물을 만들고… 식혜 만들기 초입부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엿기름 티백을 이용하면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엿기름 티백은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엿기름 티백

▲ 제품과 밥을 넣고 발효가 완료된 모습

▲ 설탕 넣고 끓이기

❶ 전기밥솥에 밥 두 공기(400g), 물 2L를 붓고 삼각 티백 9개를 넣는다.
❷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으로 4~8시간 동안 삭혀준다. (밥알이 20알 이상 떠오를 때까지)
❸ 티백을 건져낸 후 냄비에 옮겨 담아 설탕을 첨가한 후 5~10분 정도 끓여준다.

엿기름을 티백으로 판매한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과정은 더더욱 놀랍다. 번거로운 엿기름 제조 과정을 마치 보리차를 끓이듯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발효를 위한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은 똑같다. 초간단 만들기인 만큼 사용되는 밥도 즉석밥을 이용해서 제조해 보았다. 티백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엿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식혜와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밥알 식감에 예민하다면 즉석밥이 아닌 기존 방식대로 밥을 지어 사용하면 기존 번거로운 방식을 단축시키면서도 동일한 식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 단 1분이면 완성! 밀키트 끝판왕, 식혜 키트!

요즘 나오는 밀키트들이 퀄리티 정말 좋아서 기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식혜 제조 키트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혹시 알고 있었는가? 위의 방법들에 더해 발효과정까지 줄여주는 식혜 키트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이해 보자.

▲ 간편하게 되어 있는 베이스 제품

▲ 효소를 넣으면 끝이다..

▲ 1분 식혜 완성

❶ 2L 정도의 물에 식혜 베이스 1봉과 효소 1봉을 뜯어 부어준다. (용량은 제품에 따라 상이)
❷ 효소가 잘 녹도록 골고루 저어주면 끝. 심지어 바로 먹는 것도 가능하다.

세상에 단 1분이라니. 전기밥솥에 발효시키는 과정 대신 동봉된 효소를 넣어 1분 만에 식혜가 완성되었다. 제조를 하면서도 '이런 걸로 식혜 맛이 난다고?'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완성된 식혜에는 무려 밥알도 들어있다. 맛은 시중 판매하는 'ㅂㅣx식혜'와 동일하다. 밥알은 아무래도 제품이다 보니 식감은 다소 부족하고 금방 으스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든 식혜임을 고려하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 한눈에 보는 3가지 식혜 비교

	과정	소요 시간	맛
일반 식혜	번거로움	8~10시간	
엿기름 티백	비교적 간단함	4~5시간	기존 식혜 맛과 거의 동일
식혜 키트	매우 간단함	1분	시판 식혜와 맛이 동일

마치며…

자, 지금까지 식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체험해 본 결과, 기자는 식혜 키트를 애용하게 될 것 같다. 한번 만들 때 2L 가량의 식혜가 만들어지고 키트당 총 2번 제조가 가능하니 올여름 쟁여두고 홀짝이기 정말 좋겠다. 독자 여러분도 올여름도 시원한 식혜와 함께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글. 박다혜 기자 / ekgp95@

★ 아니, 도구라는 것이 있다고? ★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2편

지난 호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홈트를 찾아보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기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한 유사 헬린이들이 다양한 스트레칭과 타바타를 통해 운동에 자신감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준비했다.
헬린이가 전하는 '홈트용 도구 사용법!'

❶ 비상시에 빨래걸이가 되어주는 '턱걸이 기구'

★ 일타쌍피! 건조대로 쓸 수 있으니 꼭 사놓자! (아… 아니, 이게 아니고)

★ 본래의 목적인 턱걸이를 해보자!

업무에 치여서,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다면 점점 빨래가 쌓일 것이다. 한번 밀리기 시작한 빨래는 반드시 건조대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사필귀정'이라고 하던가? 역시 이보다 좋은 게 없다.

턱걸이하면 팔에 힘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턱걸이를 팔운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턱걸이는 등 운동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바로 턱걸이를 하러 올라갈 때 가슴을 대각선 위로 내밀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다!

★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참 쉽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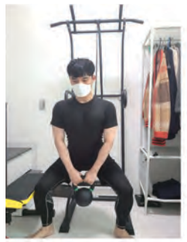
★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한 동물이다. 기자가 밴드를 '활용정점'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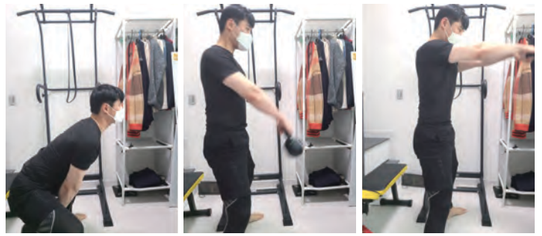
아직 힘이 부족해서 턱을 걸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밴드를 사서 시도해보자. 턱걸이는 분명 매우 어려운 운동이지만 밴드를 발에 걸고 그 탄력을 이용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가지 방법으로도 자신이 턱걸이를 단 1개도 성공하지 못한 헬린이라 좌절하고 있다면, 우선 '오래 매달리기'부터 시작해보자.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다.

단언컨대, 턱걸이 운동에서 악력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❷ 생각보다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케틀벨'


★ 무릎에 너무 많은 하중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자. 당신의 관절은 생각보다 약하다!


★ (러시안)케틀벨 스윙을 통해 둔근과 어깨 모두 자극을 느껴보자! 어깨로 올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의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기자도 사과 같은 엉덩이를 얻을 수 있을까??

케틀벨은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효과를 가진 도구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현대에 이르러 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해 많은 프로 선수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다. 크로스핏과 같은 기능성 운동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사정은 모른다. 흔히 쇠공, 쇠목탁, 포탄이라는 쉬운 명칭으로 부른다. 근본 있는 전통의 운동기구답게 케틀벨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하체의 중요성은 모든 운동인이 강조하므로, 케틀벨 운동 중 하체에 자극이 가는 운동 한 가지는 꼭 하자!

❸ 문명의 발전이란 이런 것! 무게 조절식 '덤벨'

★ 덤벨이 무게 조절이 가능하다니!

★ 무게 조절 덤벨을 이용하면 헬스의 혁명, 운동의 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아, 21세기에 이르러 탄생한 가장 위대한 발명을 꼽자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다양한 무게의 덤벨들을 살 돈도, 공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아이템! 21세기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간 듯한 완벽한 그것, 바로 무게 조절식 덤벨이다!

2kg부터 24kg까지 다양한 무게로 사용할 수 있는 덤벨을 영입한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가 상당히 늘었다.

마치며…운동은 정말 만능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기자는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운동 자체를 멀리했다면 디스크로 고통받을 일도 없었겠지! 옛 어른들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한 운동을 하고 나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그러나 기자는 디스크가 생겼어도, 운동으로 여분의 시간을 모두 소모해도 헬스를 하러 간다. 왜냐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의 쾌감을 좋아하고, 10분 운동 후 15분 거울 앞에 서 있는 감정을 사랑하며, 오늘의 운동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만족할 수 있다면 하루 중 여분의 시간을 헬스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혹, 평소 헬스장에 가는 것이 무서웠다면 기자처럼 홈트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득근'하시길!

글. 권가람 기자 / kwonriver@

게임빌-컴투스 피플 엿보기

MY BIG DATA

게임빌과 컴투스, 그리고 GCP가 함께 사보를 만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함께하게 된 게임빌·컴투스 가족들도 많아졌고, 사보 제작에 참여하신 사내 기자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코너를 좋아했고, 어떤 코너가 보고 싶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사우들의 최애는?

★ 임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표지(Cover story)'

임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표지 및 커버스토리 코너를 최애 코너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보에는 사원부터 임원진까지 다양한 가족들이 출연했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빌, 데이세븐의 부부를 비롯해, 사이 좋은 부녀지간, 온 가족이 함께한 캠핑, 한여름 호캉스 자매 등 멋진 추억을 남겨왔습니다.
사보에 출연하고자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지원 및 추천해 주세요!

우리 사우들이 좋아하는 코너 BEST 3

★ 사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My Big Data'

바로 이 코너! 'My Big Data'가 4.4점으로 1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개발자'에서 출발한 이 코너는 그동안 우리의 사우들이 어떻게 출근하고 있는지, 어떤 게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등 다양한 테마로 설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참, '인생극장 - 만약에 말야' 편도 있었죠.

더 재미있고 알찬 'My Big Data'를 위해 코너에서 소개해 주면 좋을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엉뚱한 질문, 신기한 질문, 뜻 깊은 질문 모두모두 좋습니다. 창의력을 뽐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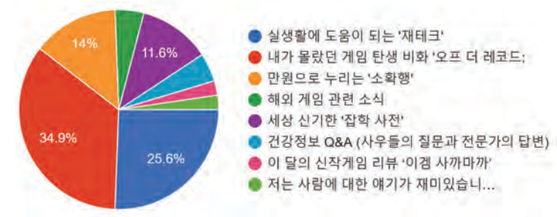
★ 2위를 차지한 코너 '달콤한 인생'

평점 4.3으로 '달콤한 인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월 바뀌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사진을 공모하는 코너죠. 지금은 가기 어려운 멋진 여행지의 추억, 온 가족이 함께한 순간, 해가 지는 노을 풍경, 방구석 패셔니스타, 그리고 금손 유저가 보내주신 '서머너즈 워' 7주년 축하 케이크와 같은 감사한 자랑거리까지, 메모리 속 사진과 그에 얽힌 사연들이 '달콤한 인생'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추억들이 그려질지 기대가 되네요.

★ 넘버쓰리, 'Game Focus'

3위를 차지한 코너는 'Game Focus'코너입니다. 게임빌·컴투스 가족들의 여러 가지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서머너즈 워', '게임빌프로야구', '컴프야', '별이되어라', '백년전쟁', '버디크러시' 등 게임빌과 컴투스가 유저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게임, 더 재미있는 업데이트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가 보고 싶은 코너는?



사우들이 보고 싶은 코너를 묻는 이 질문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것은 게임 탄생 비화를 다루는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 게임회사 다운 대답인 것 같은데요. 차후 게임이 출시되기까지의 사연을 취재해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테크' 코너, 만원으로 누리는 '소확행' 코너 등이 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사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코너들을 참신하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우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타

그 외에도 사우들은 기자가 된다면 고전 명작을 소개하는 '고전탐독', 같지만 다른 게임을 비교해 소개하는 '게임vs게임', 혼자만의 독특한 감성을 소개하는 '나혼자산다', 신박한 제품을 소개하는 '먼슬리 아이템' 등의 코너의 기자를 해보고 싶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내 기자 여러분들께는 소소하지만 알찬 보상과 취재를 위한 지원을 해드리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 대한 사우분들의 '빅 데이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게임빌컴투스뉴스'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박하고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은 홈캉스 꿀템

가정용 눈꽃 빙수기

빙수 계절에 맞춰 준비한 8월의 아이템은 무더위 홈캉스를 위한 '위즈웰 눈꽃빙수기'다! 밖에서 사 먹는 빙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너무 달고, 양이 너무 많거나 아쉽고, 아깝고 찝찝하게 2%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제 가정용 빙수기 한 대만 있으면 특급호텔이나 빙수 브랜드 카페가 부럽지 않다!

▲ 위즈웰 눈꽃 빙수기

▲ 재료와 함께

[준비한 재료들]

빙수기, 그릇, 연유, 초코시럽, 빙수 떡, 토핑 (시리얼, 라즈베리, 크린베리), 얼린 제빙 컵 (실제 사용은 5컵을 사용했다.)

TIP! 구매 시 원형 제빙 컵 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본품에 들어있는 전용 제빙 컵 2개의 양은 1~2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전에 미리 얼려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빙 컵은 많을수록 좋다. 빙다익선

[먼저 하면 좋을 것들]

빙수 만들 준비를 할 때 얼린 제빙 컵을 미리 상온에 꺼내두면 좋다. 제빙 컵에서 얼음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미리 꺼내 두었다가 뒷부분을 꾹~ 누르면 쉽게 빠진다.

TIP! 제빙컵 꿀조합 비율
♥ 달달하게 우유 110g, 연유 30g, 물 40g
♥ 덜 달게 우유 100g, 연유 20g, 물 60g

★ 본격 빙수 만들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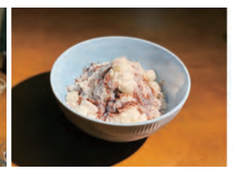
♥ 첫 도전

❶ 주방 전자저울에 제빙 컵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양을 조절해서 넣는다.
❷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단하게 얼고 잘 갈리기 때문에 처음엔 '덜 달게' 비율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❸ 토핑을 같이 얼려 갈면 식감이 좋아질 것 같아서 냉동 딸기, 오레오 쿠키를 부숴서 넣었다.
❹ 제빙 컵에 MAX 표시가 있으니 잘 보고 넣어야 한다. 뚜렷한 선이 아니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눈이 안 좋은 기자에게는 여간 당황할 일이 아니었다. 컵을 한 번 씻은 후 네임펜으로 선을 그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❺ 우유+연유+물만 얼린 한 컵을 먼저 중간 입자로 갈아 본다. 으악! 거침없이 나오는 빙수 입자들.. 일동 당황. 큰 그릇을 이용해서 그런지 그릇 밖으로 쏟아져 내렸다. 비커 같은 모양의 높이가 있는 그릇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❻ 냉동딸기를 꽉꽉 채워 넣어 얼린 얼음을 갈아준다.
❼ 토핑을 듬뿍 올리고 연유 휙휙, 시럽 휙휙, 빙수 떡을 탈탈 털어주어 딸기 빙수 완성!
❽ 첫 시식이 시작되었다. 한 입 넣자마자 사르르륵 녹는 눈꽃빙수의 맛! 정말 맛있었다. 몇 숟갈 안 먹었지만 기자만 맛있다고 느낀 게 아니었나 보다. 순식간에 사라진 빙수 그릇이 허전하여 두 번째 빙수를 만들어 보았다.
(제빙 컵 2컵은 성인 3명에게 부족하다.)

▲ 준비한 토핑들을 올리면서 혼자서는 무리가 있으니 역할을 나누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사진 찍는 사람', '버튼 누르는 사람', '그릇 돌리는 사람' 등...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동작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편했다. 그리고 이미 갈려진 얼음들은 그릇에서 계속 녹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 첫번째 빙수 완성본



▲ 두번째 빙수 중간 완성본

♥ 두 번째 빙수

한 번 만들어봤다고 두 번째 빙수는 제법 손쉽게 만들어졌다. 오레오 쿠키가 같이 갈려서 그런지 예뻤다. 안타까운 점은 금방 녹아버리니 오레오 쿠키가 제대로 갈리지는 않았다.

과자류를 넣을 때는 물의 양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한다. 딸기 빙수는 제빙 컵 2컵 오레오 빙수는 제빙 컵 3컵이 들어갔다. 성인 3명이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은 양이다.

★ 빙수 몇 그릇을 해치우며 느낀 점

♥ 체감 시간 15초의 빠른 제빙

꽤 오래 버튼을 눌러야 얼음이 다 갈릴 줄 알았지만 체감 시간은 약 15초..? 더 이상 얼음이 나오지 않아서 뚜껑을 열었는데 아뿔싸! 1~2cm 정도 얼음이 남아 있었고 더 이상 갈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 그대로 새로운 얼음을 넣으면 된다.

♥ 선호하는 식감으로 얼음의 굵기 조절 가능!

얼음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식감으로 제빙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는 굵기 구분이 담기지 않아 공식몰의 사진을 첨부했다. 곱게 갈린 입자는 소복소복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굵게 갈린 입자는 사각사각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눈꽃 빙수보다는 사각사각 느낌이 강하다. 기자는 입안에서 씹혀지는 식감이 좋아서 굵은 입자를 선호한다. 이가 시린 분들에게는 고운 입자를 추천한다. (주룩)

▶ 빙질1

▶ 빙질2

♥ 경제적인 비용과 사용성

파스텔톤의 컬러와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사용과 보관에 용이하다. 생활가전 중에서도 저렴한 편인 가격과 단순한 사용법도 장점이다. 저전력(25W)으로 하루에 10분씩 사용하면 한 달에 약 142원 전기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 시간은 1분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분리가 되니 청소도 정말 편하다. 사용법과 청소가 불편하면 안 쓰게 되는데 이 제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런 점이 참 좋다. 앞으로 매 여름 홈캉스 빙수 카페를 열 예정이다.

▶ 청소

♥ 가족과 친구들의 시식/사용 평가표

시식자	맛	재미	유용	가격	한 줄 평가
A	좋음	좋음	보통	비싸다	코로나로 나가서 먹기 힘든데 이동식 빙수 카페 느낌이다.
B	좋음	좋음	좋음	비싸다	눈을 먹는 느낌으로 참 맛있어요. 집에서 먹기 좋아요.
C	좋음	좋음	좋음	조금 비싸다	같이 만들어 먹는 팥빙수에 대한 추억이 생겨서 좋다. 아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내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
D	좋음	좋음	좋음	중고로 사고 싶다	얼리어답터라면 하나쯤은
E	좋음	좋음	좋음	괜찮다	우리 집이 신라호텔, 코로나 시국에 홈카페 최고
F	좋음	좋음	좋음	좋다	하나쯤은 있으면 고장 나기 전까지 잘 쓸 것 같다.

▲ 레트로 빙수

마치며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에게 갑자기 동생이 가져다준 레트로 빙수 사진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면 다 맛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남이 해주는 빙수가 제일 맛있다!

글. 정유진 기자 / swan91kr@

게임빌·컴투스人들의

달콤한 인생

#노을진풍경#해질녘노을처럼#운동이휴가
#먹는게남는거지#자유의그날까지

지난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휴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와는 다른 방식의 휴가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떻게 무더운 여름 속 휴가를 보내고 있나요?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우들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김태인 (NOVA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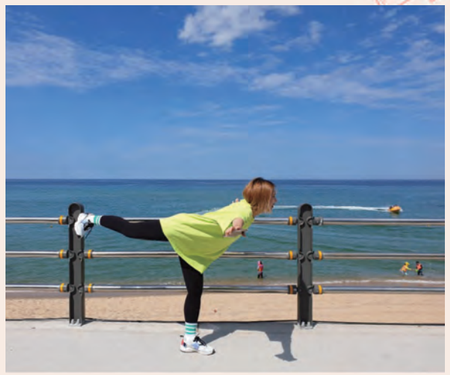
주로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사진을 찍어요. 특히 요즘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찍다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권대욱 (선행개발팀)

강철 부대 보다가 군뽐뿌(?)와서 ROKA티 입고 북한산 비봉 코스 다녀왔어요. 끝나고 사우나까지 ㄹㅇ 힐링

원성민 (센트럴아트실)

강릉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강릉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바다만 보고 집으로 돌어와야 했지만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해보았습니다. ㅜㅜ 모두 건강히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연 (BI기획팀)

뭐니 뭐니 해도 휴가는 여행 가서 맛있는 것 먹는 거죠. 최근에 강릉에 놀러 가서 순두부 짬뽕과 해물라면 먹으면서 바다 보던 게 넘나 행복했어요!

김다은 (사업기획팀)

작년부터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재충전의 시간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자랑(?)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건강해지기도 하니 일석이조라서 모든 사우분들께 추천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8월의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천하제일 요리 자랑'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 좋은 배달음식이나 쉽고 간편한 밀키트도 좋지만 가끔은 직접 '나만의 요리'를 시도해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꼭 한 번 사우들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요리, 나름대로의 비법으로 만들어 낸 요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등 '당신의 인생요리'를 자랑해 주세요~!
(당선자를 위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R CODE

기간: 2021년 8월 15일까지
응모방법: 사진 및 설명을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QR코드 또는 메일(GCNEWS@gamevilcom2us.com)로 보내주세요.

© 2020 FUNFLOW.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GAMEVIL Inc.

복면겜왕

'복면겜왕'은 매월 새로운 '갓겜'을 선정하여 감동과 여운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게임을 단계별로 추측해서 정답을 맞혀 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01 2018년 5월에 네 번째 시리즈로 출시한 게임입니다.
"Live & Breathe Football"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시작 시 나오는
시그니처 사운드는 매우 유명하죠.

02 리그 및 공식 경기, 1:1, 2:2 등 다양한 경기 모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쿼드를 만들어 전략 및 기술들을 활용해 다른 유저의 팀과 겨루는 스포츠 게임입니다.

03 전작과는 다른 '리얼함'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공식 라이선스 게임으로 유명 축구 선수들의 실존과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 선수 별로 유명한 세레머니를 보는 재미까지 쏠쏠한 게임이죠.

04 선수 성장만이 아니라 훈련 코치 및 채용 팀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팀이 훈련 코치 후보를 모집하고 코치를 고용하여 선수에게 배정해 선수에게 추가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05 E-스포츠 대회도 굉장히 유명하고 팬들을 많이 보유한 게임입니다.
2021년 서머 시즌에, 한국 대표팀도 참가하여 4강까지 올라갔고 태국 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며
기자를 포함한 많은 한국 팬들이 아쉬워한 기억이 나네요.

기간 : 2021년 8월 15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7월호 정답 : 성검전설 3 (Seiken Densetsu 3 / Trials of Mana) / **7월호 당첨자 :** 안*진(7972), 문*현(6136), 표*원(2728)

글. 이찬희 기자 / chanhee3@

‘오버워치’ 중수를 위한 ‘고급용어’ 편

’오버워치’에 PC 플레이어나 콘솔 플레이어 등 다른 플랫폼의 유저들과 그룹을 맺고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 기능이 추가됐다. ‘오버워치’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콘솔 플레이어가 많은 해외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호에서는 앞으로 출시될 ‘오버워치2’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오버워치’ 좀 한다는 플레이어들의 ‘고급용어’를 알아보자.

⁎ 파르시

‘오버워치’의 공격형 영웅인 ‘파라’와 지원형 영웅인 ‘메르시’를 함께 지칭하는 약어다. 파라와 함께 메르시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합으로, 숙련된 메르시의 경우 파라에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파라와 메르시는 상호간에 이득을 보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룹을 맺고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듀오 플레이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자방, 주방

돌격형 영웅 ‘자리야’의 스킬인 ‘입자 방벽’과 ‘방벽 씌우기’를 부르기 편하게 흔히 자기 방벽과 주는 방벽이라고 표현한다. 팀 게임이면서 동시에 속도감이 상당히 빠른 ‘오버워치’에서 플레이어들끼리 더욱 빠른 브리핑을 위해 자방, 주방이라고 줄여 말한다.

⁎ 홀딩하자

타 게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를 지키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오버워치’에서는 보통 화물, 거점을 지키자는 의미로 ‘화물 홀딩하자, 거점 홀딩하자’ 등으로 쓰인다.

⁎ 푸쉬하자

홀딩과 마찬가지로 타 게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로 ‘앞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사용된다. 보통 적군보다 아군이 수적으로 비교적 우위에 있을 때 죽은 적군의 합류 전에 교전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푸쉬하자, 앞으로 푸쉬하자’라고 말한다.

⁎ 고츠 조합

6명이 한팀을 이루는 ‘오버워치’에서 공격형 영웅 없이 돌격형 영웅과 지원형 영웅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적에게 많은 데미지를 누적시키거나 원거리에서 데미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공격형 영웅(딜러)이 없는 조합이지만, 조합 특성상 유지력이 좋아 버티면서 교전을 이어나가는 단단한 조합이다. 한때는 너무 강력해 리그의 거의 모든 팀이 이 조합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수많은 밸런스 조정을 통해 다양한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 POTG

‘Play of the Game’의 줄임말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플레이로 표기되고 있으며, 유저들 사이에서의 은어로 ‘팟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기가 끝난 뒤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버워치’에서 직접 선별하여 영상이 나와 멋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 의아한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 GG

대부분의 게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Good Game’의 약어이다. 경기가 끝난 후 “다들 고생했어요.”, “멋진 경기였어요.” 라는 뜻으로 게임 종료 시 즐거움이나 상대에 대한 정중한 인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글. 하형태 기자 / gudxo0909@

그림 . 이장렬 기자 / dlwkdfuf2004@

7월호 당첨자 발표 장경록, 현경훈 님 축하드립니다~!

장경록 (GCP 정보보호팀)

현경훈 (컴투스 시나리오팀)

WE WIT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말풍선에 위트있는 멘트를 넣어
사진 촬영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WEWIT 삽화는 사우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멋진 솜씨를 뽐낼 금손 사우들께서는 언제든지
편집부에 문의 주세요~!
(이 코너는 임직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2021년 8월 15일까지
메일 : gcnews@gamevilcom2us.com
회사, 소속,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Congrats!

Welcome Welcome

글로벌 No. 1 모바일게임사를 위해 함께 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 입사를 축하합니다!

게임빌

게임제작본부 신재우 과장, 게임사업부문 최희정 사우, 게임제작본부 최도순 대리,
게임사업부문 천정환 사우, 게임제작본부 김세현 사우, 게임제작본부 류상아 인턴,
게임제작본부 은선아 인턴, 게임제작본부 이채은 인턴, 게임제작본부 김진호 사우,
게임제작본부 백상현 사우, 게임제작본부 손동현 사우, 게임제작본부 이주영 사우,
게임제작본부 황도현 사우, 게임사업부문 심예은 사우

컴투스

SC사업본부 강윤원 과장, SR사업본부 소지현 사우, 가치경영본부 이현웅 과장,
가치경영본부 왕다은 대리, 가치경영본부 김주은 사우, 개발운영센터 조민주 대리,
개발운영센터 최형기 차석, 개발운영센터 남궁곤 수석, 개발운영센터 엄수진 대리,
경영전략부문 최원준 상무, 마케팅&컨텐츠센터 장수현 사우, 마케팅&컨텐츠센터 김민서 대리,
마케팅&컨텐츠센터 김종학 대리, 사업운영센터 서예진 대리, 제작4본부 김해진 대리,
제작5본부 문예빈 대리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인프라실 신재균 과장, 인프라실 박성베 대리, 플랫폼2실 온승태 선임,
인프라실 김동진 과장, 플랫폼2실 조수연 인턴, 플랫폼2실 이재환 인턴,
플랫폼2실 정우현 인턴

★

Gamevil Com2us Taiwan

Akira Hsu, Peggy Fang, Bin Chen

Gamevil Com2us Indonesia

Yohanes Brahmaputra

TWO IN MEDIA 171호 2021년 8월호

컴투스 'SWC2021' 선수 라인업 공개, 참가 신청자수 역대 최고!

컴투스는 글로벌 모바일 e스포츠 대회 'SWC2021'의 선수 라인업을 최종 확정하고 예선에 출전할 총 72명의 지역별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로 5년 연속 개최되는 'SWC'는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최강자를 선발하는 세계 e스포츠 대회다. 이번 'SWC2021'은 지난 6월 약 2주간 선수를 모집해 전 세계 총 5만 6천여명의 '서머너즈 워' 플레이어가 등록을 신청하며 역대 최고 참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특히 'SWC2019' 월드 챔피언 'L'EST', 'SWC2020' 월드 챔피언 'MR.CHUNG' 등 기존 강자 외에도 신규 출전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최근 신규 및 복귀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대회 기반인 '월드 아레나'의 플레이 이용자수도 상승하는 등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대회 첫 출전자의 수도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세대 교체를 노리는 신흥 강자들의 등장이 전 지역에서 두드러지면서, 타이틀을 지키려는 전통 강호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임빌, 전략 RPG '이터널소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게임빌이 유망 강소 개발사 '킹미디어(대표 장동훈)'가 제작한 전략 RPG '이터널소드(영문 타이틀: Eternal Sword)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터널소드'는 다양한 영웅을 키우는 재미와 전략적인 대규모 전투가 어우러진 독특한 게임이다. 탑 뷰 형태로 펼쳐지는 전투에 도트 그래픽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용병 캐릭터들은 고전 RPG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투박하지만 귀여운 캐릭터들을 부대 단위로 지휘하고 실시간 대규모 난전을 펼치는 재미를 선사해 국내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게임빌은 '킹미디어'가 제작한 '이터널소드'를 글로벌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컴투스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글로벌 이벤트 대회 '월드 쇼다운' 본선 진출자 확정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 이벤트 대회인 '백년전쟁 월드 쇼다운(Lost Centuria World Showdown, 이하 '월드 쇼다운')'의 본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선수 명단에는 대만 지역 출신의 '哈利'가 총 63번의 월드 토너먼트 승수를 기록하며 랭킹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어, '大V'(중국), '마브왕'(한국), 'Happy'(한국), 'MonkeyDLuffy'(프랑스), '선화월'(한국), 'Makjay'(인도네시아), '효주'(한국)가 차례대로 높은 승수를 기록하며 최종 8인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선수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8일 12시부터 본선 및 결선 대회에서 총 2만 달러(한화 약 2300만원)의 상금을 두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글로벌 업데이트, 트레이너 유전자 시스템 도입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이하 2021 겜프야)'가 글로벌 업데이트를 통해 트레이너들을 확정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트레이너 유전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트레이너 유전자는 레전드 등급부터 스타 등급까지 있으며, 유전자 100개를 모으면 해당 트레이너를 확정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 유저가 원하는 대로 선수들을 창의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서 나만의 팀 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불더위 여름의 시작!', '플래닛 리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글로벌 구단주들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지고 있다.

EPILOGUE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들이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박민찬 기자 8-11p Cover Story Be my precious family! '배진영' 사우

매달 즐겁게 보던 사보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집순이'이자 '댕댕 맘'이신 배진영 사우님의 표지모델 인터뷰 즐겁게 읽어주세요~

김현창 기자 16- 17p Game Focus 모늘은 나도 야구 승부사! 'OOTP GO'

좋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성수 기자 18-19p Special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유저와 함께 지키는 '해양 위기 동물 7종' 소개

사보 기자 활동을 통해 유익한 소식을 사우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부와 기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하윤 기자 20-21p Special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성공의 숨은 공신,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Hive)'

입사 한 달 차에 사보기자의 기회가 주어져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GCP HIVE 서비스 소개 및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도있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의 자긍심도 향상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문정환 기자 26-27p Special '낚시의 신' – Making Story

사보 기자가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봐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는데, '역시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김풍기 기자 28-29p 고전탐독 그때 '갓겜'은 지금도 '갓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레이맨' 시리즈

리뷰했던 게임의 난도가 꽤 높아서 정말 많이 죽으면서 실력을 키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클리어 후의 성취감은 최신 게임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이농 기자 32-33p 퇴근후에 여름 추억을 담은 '산' 여행

사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사 쓰다가 그리웠던 여행 추억이 떠올라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부와 다른 기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다혜 기자 34-35p 맛세상 새삼 쉬운 컨통음식 '식혜' 만들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사보 기자로 활동하며 기사를 작성해보니, 새삼 컴투스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 납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저희 팀원분들, 모든 사우분께 감사드립니다.

권가람 기자 36-37p 나도혼자산다 아니, 도구라는 것이 있다고?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2편

기사를 쓰면서 평소 필요했던 운동기구를 살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가기 힘든 이 시국에 다시금 운동에 대한 마음이 샘솟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정유진 기자 40-41p Monthly Item 무더운 8월, 홈캉스를 위한 꿀템! 가정용 눈꽃 빙수기!

사진작가처럼 열심히 사진도 찍어보고 글도 써보고 안 해본 역할은 언제나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원 코너에서 재등장하려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아요. 꿉꿉한 여름 맛있는 빙수 드시면서 게임빌컴투스뉴스 함께해요!

이찬희 기자 44p 복면겜왕

평소에 재밌게 읽던 사보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재밌게 준비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회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형태 기자 48p 게임백과사전 '오버워치' 증수를 위한 '고급 용어' 편

과거에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게임으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그때의 감성에 젖어 피시방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플레이했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장렬 기자 49p WEWIT

We Wit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집사의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즐겁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보를 통해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Pulitzer Prize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임직원이 기자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집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 간 열심히 취재하고 즐겁게 노력해주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장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 두 분을 선정해 퓰리처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2021년 7월호 퓰리처상 수상자들을 공개합니다.

박소명 기자

첫 사보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퓰리처에 선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보에 참여할 때 어떤 기사를 써야 하나 고민하다 제가 겪어본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경험을 전달하면 그나마 유익하고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같은 팀원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셨다 하여 기뻤습니다.

멕시코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였고 전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전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와중이라 여행 가기에는 무리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기자

부족한 기사 내용이었는데 좋은 평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짧은 소개 글로 적으려다 보니 소개하지 못하고 빠진 내용도 있고 설명을 아쉽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좋은 취미생활을 소개해 드리려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본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적을 때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알려드려야 할지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려웠고 평소에 글을 쓰거나 사진 촬영에 자신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퇴근 후에 건강한 취미생활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

'GC 상식 퀴즈'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잘 읽어보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를 풀고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s://forms.gle/HzQe3ut2yjFtHo8K8
기간: 2021년 8월 15일까지

1. 게임빌컴투스플랫폼의 게임 전문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❶ 하이원 ❷ 하이브 ❸ 하이빔

2. 간단한 조작만으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3D 리얼 낚시 게임 '낚시의 신'의 기록이 아닌 것은?
❶ 출시 1년만에 3,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❷ 영국의 게임 전문 매체 '포켓게이머'가 2015년 최고의 스포츠 게임으로 선정했다.
❸ 최초 버전부터 호응이 좋아 바로 출시했다

3.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환경 보호 캠페인에서 선정된 '해양 위기 동물 7종'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은?
❶ 고래상어(Whale shark) ❷ 아싸가오리(Assa gaory) ❸ 해마(Seahorses)

4.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글로벌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으로 트레이너들을 확정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❶ 트레이너 주전자 시스템 ❷ 트레이너 유전자 시스템 ❸ 트레이너 전기전자 시스템

정답자 공개!

7월호 정답 : ❷ 드래프트 비어 이벤트 ❷ OOTP GO ❶ 비대면 봉사활동이다. ❸ 3초공연
7월호 당첨자 : 강*주(6497), 유*형(3627), 이*효(3097)

TM/© 2021 MLB
OFFICIALLY LICENSED PRODUCT – MLB PLAYERS, INC.

MLB 9이닝스 21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컴투스 프로야구 2021

2021 HOT SUMMER!